

오전(1부, 노량진) 6시

오전(2부) 7시

오전(3부) 10시

오후(4부) 3시

수요일예배 저녁 8시 30분

주일에배

서울 교회 02)533-9191

장소: 강서구 공항대로 376 KBS스포츠월드

Jesus Centered News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수중심교회

2026년 8월 9일 (제 1370 호)

1부(오전) 7시

2부(오전) 10시

3부(오후) 3시

수요일예배 저녁 8시 30분

주일에배

인천 교회 032)763-9191

장소: 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서울)서울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37호 Tel. 02)533-9191 Fax. 02)592-9191 (인천)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Tel. 032)763-9191 Fax. 032)575-5730 http://www.jcc.tv(철야 주일 예배 위성 및 인터넷 생방송)



봉 우 칼 럼

사막의 물병

‘사막의 물병’이라는 책의 내용이다. 주인공은 끝없이 펼쳐진 사막을 여행한다. 사막이다 보니 여행 중 물이 부족해지고 극심한 갈증을 겪게 된다. 기진맥진했을 무렵, 사막 한가운데 오두막을 발견하고, 그 안에서 낡은 펌프와 물병 하나를 찾게 된다. 물병에는 마실 수 있는 물이 들어있었고, 옆에는 이런 내용의 안내문이 적혀 있었다.

“이 물을 마시지 말고 펌프에 모두 부으십시오. 그러면 지하수를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충분히 사용한 뒤에는 다시 물병을 채워 다음 사람을 위해 남겨두십시오.”

주인공은 고민한다. 지금 물을 마시면 당장의 갈증은 해결되지만, 이후에는 다시 물이 없을 것이다. 반대로 물을 모두 펌프에 부었는데 물이 나오지 않는다면 끝장이기 때문이다. 물이 안 나오면 물도 잃고 목숨까지 위협해질 수 있으니 쉽게 결정할 수 없었다.

그러나 주인공은 안내문을 믿기로 하고, 물을 모두 펌프에 부었다. 처음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계속 펌프질을 하자 마침내 시원한 지하수가 펌핑 솟아났다. 주인공은 충분히 물을 마시고 자신의 물병도 가득 채운 뒤, 떠나기 전에 있던 물병을 채워놓고 안내문에 이렇게 덧붙였다.

“정말 됩니다. 믿고 그대로 하십시오.” 누구나 인생에서 메마른 시기와 어려움을 만나게 된다. 그때는 당장 눈앞의 이익에 급급하기 쉽다. 그러나 더 큰 미래를 선택할 줄 알아야 한다. 농부는 아무리 배가 고파도 종자를 먹지 않는다. 종자를 먹는 순간 당장 배는 채울 수 있으나 풍성한 가을을 영원히 잃게 되기 때문이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다. 성공하는 사람은 눈앞의 작은 만족보다 미래의 큰 열매를 바라본다. 순간의 유혹을 이기고, 믿음으로 씨앗을 심고, 인내로 기다릴 줄 안다. 오늘의 계란을 먹는 것이 아니라 내일의 닭을 키운다.

성공한 그들은 우리에게 말한다. “정말 됩니다. 믿고 그대로 하십시오.” 내가 성공해야, 내가 믿음으로 승리해야 누군가에게 희망을 남기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인생은 선택이다. 당장 물병의 물을 마셔버릴 것인가, 아니면 더 큰 샘물을 믿고 물병의 물을 펌프에 부을 것인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꿈같은 기적을 맛본다

“여러분을 이 성산에 끌어올린 것은 안 되는 것을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8월 3일부터 시작된 하계산상집회에서 총회장 목사님은 집회의 목적을 이렇게 설명하시고는 통성으로 기도시키셨다. 바로 거기에 안 되는 것을 되게 하는 방법이 있었다.

“하나님은 당신의 명예를 걸고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렘33:2~3).

모세가 홍해 앞에서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맛보았습니다. 한나가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

회 41년, 부르짖는 기도가 없었다면 오늘의 예수중심교단은 없었을 것이고, 오늘의 이초석도 없었을 겁니다. 저는 교회가 없어서 부르짖었고, 성도들이 아프고 어려움을 당할 때 부르짖었고, 어머니와 형제들의 구원을 위해 목이 터져라 울며 기도했습니다. 또 세계 선교의 지경을 넓히기 위해 울부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성전 없이도 우리 교회는 부흥했고, 우리 어머니가 예수를 영접하여 권사 직분까지 얻고 천국에 입성하였으며, 우리 형제들, 자식과 조카까지 주의 종이 되는 꿈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의 아버지입니다. 자식이 울며 부르짖는데, 어느 아버지가 나 몰라라 하겠습니까?

이런 이유입니다. 하루 4시간만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드실 것이고, 마른 땅에 생수가 터지게 할 것이고, 망한 것이나 죽은 것을 살리실 것이고, 얽히고설킨 것을 다 풀어주실 것입니다.

그런데도 왜 부르짖지 못합니까? 그건 바라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바라는 것이 있어야 의욕과 열정이 솟구치고, 그래야 목이 터져라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는 것이 믿음 아닙니까? 그것을 이루려면 의욕을 가지고 부르짖어야 하나님이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십니다.

하같이 부르짖을 때 ‘하갈아 무슨 일이냐’(창21:17) 하신 하나님이, 모세가 부르짖을 때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출14:15) 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부르짖을 때 동일하게 ‘무슨 일이냐? 무엇을 해줄꼬?’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2026 하계산상집회(8월 3일~13일 장성 예루살렘기도원)

이 단았던 태의 문을 여사 사무엘을 주셨고, 유다 전 민족이 멸절될 위기에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 금식하며 부르짖어 기도하더니 유다 전 민족을 구했으며, ‘곧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최후통첩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달받은 히스기야는 즉시로 면벽하고 눈물로 부르짖어 기도하더니 생명이 15년이나 연장되었습니다. 감옥에 갇힌 베드로 사도를 구하기 위해 성도들이 부르짖어 합심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 풀어내셨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부르짖어 기도한 자들이 이런 꿈같은 일을 기록한 책입니다. 어디 성경이 기록된 인물들뿐입니까? 목

까? 약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주겠거늘, 하물며 하나님이시겠습니까?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집 달라, 암에서 고쳐달라, 치매에서 고쳐달라, 기업을 달라, 취직시켜 달라, 교회 부흥을 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사 그들을 구원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부르짖어 기도하면 천사와 천군을 보내시고, 가난에서, 병에서, 고통에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꿈 같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대사(大事)를 이루실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이 성산에 끌어모은 것이

노’(출14:15) 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부르짖을 때 동일하게 ‘무슨 일이냐? 무엇을 해줄꼬?’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이튿날 오전에도 단에 서신 목사님은 멕시코 몬테레이에서 찾아온 엠마누엘 목사를 직접 성전으로 불러 올려 온 성도와 함께 환영해주셨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마음으로 지구 반대편에서 온 영적 아들을 사랑으로 포옹하며, 기도원 구석구석을 보여주고, 큰 꿈을 가지라고 격려했다. 이 모든 것이 목사님이 꿈을 갖고 기도해오신 결과 아니겠는가! 할렐루야!

신묘수 전도사



소리를 지르며, 요동하는 귀신을 내쫓았다



멕시코 몬테레이에서 온 엠마누엘 목사



즐거운 식사시간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롬4:17~25)

준비하지 않는 자의 꿈은 그림의 떡이다

제가 여러분에게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한 마리씩 드리겠습니다. 눈이 번쩍 뜨이시죠? 요즘 금값이 어마어마한데 매일 황금알을 낳아주는 거위가 있다면 와~ 세상에 부러운 것이 없을 겁니다.

하나님은 평생 황금알을 낳는 삶의 원리를 가르쳐주셨습니다. 그 원리는 준비와 점검, 그리고 부지런입니다.

먼저,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준비한 자만이 단 열매를 따냅니다. 청소년수련회 때나 산상집회 때면 저는 어김없이 저의 40여 년 사역의 영상을 보여줍니다. 저를 자랑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준비하면 저런 열매를 거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그냥 일어날까요? No! 저는 한번의 집회를 위해 7시간 이상 기도로 준비합니다. 수행비서인 한은택 목사의 말대로 호텔에 수건 몇 장을 걸쳐 깔아놓고는 거기서 낙타 무릎이 되도록 기도로 준비합니다. 그렇기에 '오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나는 가짜 목사요!'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준비한 자는 자신감과 여유가 있거든요.

사실 물설고 말도 선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은 녹록하지 않습니다. 저는 집회 주관자들과 수없이 연락하며 만반의 준비를 당부합니다. 그들의 말만 믿는 것이 아니라 제가 직접 사람을 보내서 점검합니다. 준비는 시작이고, 점검은 완성입니다. 아무리 잘 준비해도 마지막 점검이 없으면 작은 틈 하나로 큰 실패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가끔 돈이나 계산하면서 이초석 목사만 오면 다 되는 줄 알고 아무 준비도 하지 않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때문에 정말 고생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후로 저는 철저히 짚고 넘어갑니다.

부지런한 농부의 전답에는 잡초가 없다

마태복음 25장의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고 철저히 점검까지 한 것이고,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준비는 했으나 점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 혼인 잔치에 왜 포도주가 떨어졌습니까? 준비를 안 한 게 아니라 철저하게 점검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사태가 일어난 것입니다.

철저한 준비는 넘치게 준비하는 것입니다. 미래를 위한 준비도, 노후 준비도, 사후 준비도 넘칠 정도로 해놔야 안전합니다. 오 리 가려면 십 리 갈 마음으로 준비해야 하고 점검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때면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

용을 예산하지 아니하겠느냐"(눅14:28). 요셉은 7년 풍년 후에 7년 흉년이 온다는 바로의 꿈을 해몽해주고, 모든 권한을 위임받아 준비하는 일에 매진했습니다. 풍년 동안 넘치는 곡물을 얼마나 저장했는지 각 성에 저장한 곡식이 바다의 모래 같이 심히 많아 세기를 그칠 정도였다고 창세기 4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흉년 때에 팔아 애굽을 대국으로 만들었고, 그것이 사랑하는 가족과 재회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마 24:44).

영·혼·육에 충분

히, 철저히 준비하고 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준비 없이 사업하려고요? 준비 없이 결혼이요? 준비 없이 아이부터 낳는다고요? 준비 없이 선교지에 간다고요? 준비 없이 목회한다고요? 준비 없이 물에 뛰어든다고요? 준비하지 않는 자는 망하기로 계획한 자됨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기회는 준비한 자의 몫이고, 준비한 자가 성공을 누리는 겁니다. 세계적인 명지휘자 토스카니니는 원래 첼로 연주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불행하게도 아주 심한 근시여서 악보를 보고 연주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늘 모든 악보를 외워서 연주회에 나가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연주회 직전에 지휘자가 갑자기 쓰러져 병원에 실려 가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곧 막이 올라야 하는데 말입니다. 단장은 난감했습니다. 그때 단장은 토스카니니가 모든 악보를 다 외우고 있다는 것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토스카니니에게 지휘봉을 주어 무대를 열었고, 그때 그의 나이 19세! 그날이 바로 세계적인 지휘자 토스카니니가 탄생한 순간이

였습니다.

그가 준비되지 않았다면 기회는 그림의 떡이었을 겁니다. 완벽하게 준비되었기에 그에게 황금알을 낳아준 것입니다.

다음으로 부지런해야 합니다. 사실 준비하는 삶과 부지런한 삶은 실과 바늘 같은 존재입니다. 게으른 자가 미리 준비하는 것 봤습니까? 부지런해야 미리미리 준비합니다. 그래서 준비와 부지런이 결합하여 행복과 성공, 부와 명예라는 자식을 낳는 겁니다. 정말 그런지 성경은 말씀합니다.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잠10:4),

"게으른 자는 그 집을 짓도 사냥하지 아니하느니라"(잠12:27).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잠13:4). 성경은 집안이나 학력, 인물이 좋아야 부귀영화를 갖는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부지런한 자의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자들은 없는 부모 탓을 하고, 세상 탓을 하는데, 그건 게으른 자들의 특징입니다. 성공자들은 하나같이 다 부지런했습니다. 핑계 댈 시간에 부지런히 방법을 찾았습니다. 파나소닉의 창시자인 마쓰시타 고노스케는 3무(三無), 즉 약하고, 배운 것이 없고, 가진 것이 없었지만, 노력으로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나는 건강도, 학력도, 재산도 없었다. 그래서 누구보다 부지런히 노력할 수밖에 없었다."

미국 초대 대통령이었던 조지 워싱턴에게 기자가 성공의 비결을 묻자, "굳이 말한다면 나는 매일 네 시에 일어났습니다. 그것 외에 내세울 다른 것은 없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현대 신화를 쓴 정주영 회장도 쌀가게 시절부터 새벽 3시면 어

김없이 일어나 해가 빨리 뜨지 않는다고 역정을 냈으며, 7시면 회사로 출근했다고 합니다. 대기업의 임원만 봐도 새벽같이 출근해서 회의합니다.

자신 하나도 관리하지 못한 자가 어디 대업을 꿈꾸겠습니까? 그런 자에게 찬란한 미래가 오겠습니까? 신용불량자가 되고 말지요. 신용불량자는 자신이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데서 오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부지런과 열심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만물을 주장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시121:4), "만군의 여호와와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사9:7).

예수님은요? 당연히 부지런하셨지요. 예수님은 늘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셨고(막 1:35), 낮에는 복음을 전하고 병을 고치시느라 식사할 틈조차 없으셨습니다(막 6:31). 그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님은 우리도 부지런하기를 원하셔서 말씀하십니다. "부지런히 구하고"(욥8:5), "부지런히 살피며"(잠27:23), "부지런히 찾고"(잠1:28),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신6:7), "부지런히 배우고"(딤후3:14), "부지런히 기도하고"(엡6:18), "부지런히 주를 섬기라"(롬12:11).

준비하지 않는 자에게 기대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 부지런히 내일을 준비하십시오. 부지런히 노후를 준비하십시오. 부지런히 사후를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매일 그것을 점검하십시오. 그렇게 사는 사람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가진 사람입니다. 게으른 자들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잡아 죽입니다. 일확천금이나 바라고, 신데렐라가 되는 꿈을 꾸기에 거위 배를 갈라 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거위 배 속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위는 부지런히 준비한 자에게만 황금알을 낳아줍니다. 여러분, 오늘의 준비가 내일의 기적이 됩니다. 오늘의 점검이 내일의 안전이 됩니다. 오늘의 부지런이 내일의 부귀가 됩니다. 부지런히 준비하고, 부지런히 점검하는 삶에서 황금알은 매일 쏟아집니다. 할렐루야!

2026 하계산상집회

- * 8월 10일(월)~13일(목)
- * 장성 예루살렘기도원
- * 문의: 02. 533. 9191

총회장 이초석 목사



제28회 전국 대학청년부 연합수련회 7월 30일~8월 1일 내가 서 있는 땅부터 기름지게 하자!



부지런히 준비하라

“여러분들이 나의 설교를 스펀지처럼 빨아들이니 내가 설교할 맛이 납니다.”

강단에 서신 총회장 목사님은 초롱초롱한 눈빛의 수련생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며, 수련회 사상 초유의 4시간 30분 강의를 마치셨다.

중고등부 수련회에 이어 7월 30일부터 8월 1일까지 제 28회 전국 대학청년부 연합수련회가 장성 예루살렘기 도원에서 이어졌다. 전국 각지와 해외를 넘어 외국인들 까지 천여 명의 젊은이들이 영적 전지훈련에 참석했다. 첫날 저녁 집회, 단상에 오르신 총회장 목사님께서 ‘준비하지 않는 자의 꿈은 그림의 떡이다, 성공은 준비한 자의 몫이다’라는 주제로 설교를 시작하셨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한 번의 설교를 위해 7시간을 기도로 준비하고 나왔습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도 사람을 위해 천지창조로 준비하셨고, 동식물과 여러 환경들을 준비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 구원의 날을 준비하십니다. 성경의 성공한 믿음의 조상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등도 모두 준비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기회는 준비한 자의 몫입니다. 저는 해외 선교차 이동할 때 비행기에서 만난 기업 회장들이 자는 모습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그 자투리 시간에도 책을 보고, 보고서를 살펴며, 비즈니스를 준비합니다. 여러분들은 인생의 황금기를 보내며 취업, 사업, 결혼 등등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목사님은 로망의 ‘생각하는 사람’ 동상 이미지에 본인이 직접 민트색과 빨간색으로 색칠한 사진을 보여주시며, 다 같이 이 사람처럼 무엇을 준비할지 직접 턱을 괴고 생각해보라고 하셨다. 이에 청년들은 “저는 사업을 위해 중국어를 준비하겠습니다. 저는 결혼을 위해 저축으로 준비하겠습니다.”라고 답하며 목사님의 말씀을 실천했다. 둘째 날, 오전 비전 세미나에서는 ‘성공자들의 공통점은 부지런했다’라는 주제로 성공자의 핵심 DNA는 ‘준비성과 부지런함’임을 강조하셨다.

“준비성과 부지런함이 결혼하면 행복감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이 있으면 활력과 열정과 의욕이 넘치게 되어있습니다. 대기업 총수 중에 부지런하지 않은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들은 내년, 내후년, 나아가 10년 후에까지 모두 부지런히 연구하며 개발하고 있습니다. 성공한 자들의 공통점은 부지런히 배우고 노력하며 준비하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80을 바라보는 나이에든 부지런히 외국어도 공부하고, AI도 공부합니다. 언제까지 밥만 먹고 잠만 자는 똥공장이 될 겁니까? 배움의 고통은 잠깐이지만 배우지 않은 고통은 영원합니다. 부지런한 자들은 방법을 찾지만 게으른 자들은 핑계를 찾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을 통해 게으름을 악이라 질타하셨습니다. 또한 달란트 비유를 통해 부지런히 일하여 달란트를 배로 남긴 자들을 칭찬하셨습니다. 잠언에서도 부지런을 누

누이 강조합니다.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잠10:4), 부지런한 자는 게으른 자를 다스리게 됩니다(잠12:24). 그러니 나는 여러분들이 저처럼 부지런을 떠는 자들이 되어 각 분야에 머리로 성장하기를 진정 바랍니다.”

대학·청년 수련회 기간 3번이나 강단에 서신 총회장 목사님은 한 명의 성도로 시작하여 전 세계 70여 개국에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셨다. 수련회 기간을 앞두고 교역자들이 이번 대학·청년 수련회에 어떤 강사를 세울지 목사님께 여쭙보았더니, 목사님은 “성공해본 자가 가르쳐야 한다. 나는 우리 아이들을 성공시킬 자신이 있다. 그러니 내가 직접 가르치겠다.”라고 자신감을 보이셨다. 그렇다. 성공자를 따라가면 성공하는 법, 우리 예수중심 청년들이 목사님처럼 준비하고, 목사님처럼 부지런히 연구하고 개발하면 세상에서 성공자가 될 수 있다. 이 수련회를 마치고 각자의 분야에서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변화하려고 몸부림치는 청년들을 보면서 예수중심교단의 미래, 이 나라의 미래가 더욱 기대된다.

이번 수련회를 위해 최선을 다해 말씀을 전해주시는 총회장 목사님께 감사드리고, 또한 물질로, 봉사로, 기도로 도와주시는 예수중심교단의 모든 분께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를 드린다. 특히 예수중심교단의 후배들을 위해 휴가를 단념하고 굶은일을 도맡아 해주신 청·장년 간사단에 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송현혜

내가 서 있는 땅부터 기름지게 하는 어린이가 되자!

서울교회와 인천교회의 유아유치부, 유치동부 여름성경캠프가 8월 2일~4일에 걸쳐 인천교회에서 진행되었다.

서울과 인천 교회 유아유치부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준비한 ‘2026 여름성경캠프’가 주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풍성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연합으로 진행된 이번 캠프는 작년보다 더욱 깊은 감동과 아름다운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내가 서 있는 땅부터 기름지게 하는 어린이가 되자’는 주제 아래, 아이들이 ‘순종’이라는 실천 주제를 몸소 체험하고 느낄 수 있도록 세밀하고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채워져 그 의미를 더했습니다.

유아유치부 아이들에게는 다소 어렵게 다가갈 수 있는 표어였지만, 전도사님들과 교사들이 기도로 무장하고 온전히 헌신한 덕분에 최고의 시간을 빚어낼 수 있었습니다.

인천 유아유치부에서 전체적인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정성껏 준비해주셨고, 서울에서는 아이들의 세심한 돌봄과 영혼 관리를 전담하며 아름답게 협력하여 선을 이루었습니다.

큰 은혜가 예비된 주의 일에는 언제나 이를 방해하려는 악한 영의 꾀계도 따르기 마련입니다. 이번 캠프를 앞두고 허리띠를 크게 다치거나 장거리 운전을 앞두고 차 타이어에 못이 박혀 아찔한 사고로 이어질 뻔한 순간도 있었습니다. 자녀가 입원해야 하는 애타는 상황에서도 담대하게 믿음으로 캠프에 집중하며 기도로 승리한 교사도 있었고, 심지어 얼굴 근육 마비로 계속 치료를 받아야 하

는 안타까운 상황도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교사들은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며 담대함으로 승리했습니다. 오직 영혼 살리는 일에만 집중할 때 고난과 슬픔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오히려 주 안에서 더욱 단단하게 하나 되는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였습니다.

지금까지의 캠프는 KBS 스포츠월드에서 출발하여 이동하는 일정이 주를 이루었으나, 이번에는 서울 교회 성도님들이 오후 3시부터 인천에서 예배를 드리는 일정에 맞추어 부모님들의 협조 아래 처음부터 인천에서 바로 캠프의 막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개회 예배를 시작으로 인형극, 성경 테마 여행 등 어린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펼쳐졌고, 아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내가 서 있는 땅, 곧 내 삶이 가장 기름지게 변화된다”는 영적 진리를 깊이 깨닫는 귀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예배 시간마다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도 놀라웠습니다. 첫날 저녁 예배에서는 서울 교회의 이시대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며 성령 세례를 베풀어 주셨고, 아이들은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덧입었습니다. 이튿날 저녁 예배에서는 인천 교회의 장영국 목사님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소유하고 그 이름으로 명령할 때, 온 세상이 내 앞에 복종한다는 놀라운 영적 권위를 깨우치는 복된 시간이 되었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진리가 아닌 세상의 헛된 가치를 주입하며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려 합니다. 하지만 이번 캠프 기간에 우리 아이들은 어린 나이임에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감격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기적을 보여주었습니다. 더 나은 생각과 행동으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소중한 은혜로운 현상이었습니다.

유아유치부 교육의 가장 고귀한 가치는, 아이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새겨져 ‘어린 사무엘’처럼 자라나게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악한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양육하는 것입니다. 이번 2026년 여름성경캠프는 ‘하나님 자녀의 권세야말로 세상 최고의 권세이며, 내 땅을 기름지게 하는 유일하고 완벽한 방법’임을 우리 모두의 마음에 확증하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었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여름성경캠프를 위해 뒤에서 눈물로 기도해주시고 헌신해주신 모든 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무엇보다,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주신 살아계신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님께 모든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서울교회 유아유치부 이삭 전도사

